

몸의 물질성과 섹슈얼리티* : 이론과 영상 재현의 대응적 독해

이수안**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육체유물론적 관점에서 몸의 물질성이 섹슈얼리티와 맺는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영상이미지의 재현을 분석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이론의 추상성이 재현적 내러티브 속에서 구체적인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70년대의 산업화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이 온 몸으로 살아낸 과정을 그린 〈영자의 진성시대〉와 90년대 후반 섹슈얼리티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통해 여성의 성적 주체의 사례를 보여준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이론적 논의와 대조시켜가면서 독해하는 재현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대응적 독해의 방법론을 통해 몸, 노동,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여성주체형성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론적 논의를 해왔던 필자의 논의가 추상적 이론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현실과 밀착하여 좀더 설명력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영상재현으로 표현되는 여성 주체 형성의 다양한 전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제어: 몸의 물질성, 섹슈얼리티, 육체유물론, 여성 주체, 영상 재현

* 이 논문은 계명대 여성학연구소의 2010년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 suan@ewha.ac.kr

『젠더와 문화』 제3권 2호(2010) pp.7-36

© 2010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1. 몸 논의와 영상 재현

우리에게 몸이란 무엇인가? 몸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묶여 있으면서 현존하기 때문에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이다. 그런데 그냥 실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 토대가 되는 경험이 각인되고 섹슈얼리티를 담지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하여 노동을 담당하고 생명을 생산하여 미래와 연결되는 개인적 역사의 구심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유기체이다. 즉 섹슈얼리티가 하나의 표식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 형성과 주체적 인식의 토대로서 몸을 통해 작동하고 문화적 매개의 역할까지도 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갖는 원초적인 물질성, 성별적 차이를 지닌 몸의 젠더 수행성과 몸이 그 자체로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짚어보는 작업은 몸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주체성 인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여성의 몸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획득하는 생산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영상이미지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재현의 중심에는 주인공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육체가 자리 잡고 있다.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닌 인간이 영상적 재현의 주요 모티브인 것은 자명하다.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의 경우 여성과 남성으로 대별되는 젠더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설정이 되고 멜로물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젠더 관계가 등장한다. 이로써 영상적 재현의 구체적인 존재로서 몸이 전면에서 드러나고 감독이 재현하고자하는 섹슈얼리티의 유형이 몸을 매개로 하여 재현된다. 이 논문에서는 1975년에 만들어진 <영자의 전성시대>와 1998년에 만들어진 <처녀들의 저녁식사> 두 영화를 사례로 하여 몸의 물질성과 섹슈얼리티가 근대적 의미와 포스트모던한 맥락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작동하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성주체를 설명하는지 분석하면서 대응적 읽기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번 논문에서는 분석의 이론적 틀이 되는 몸의 물질성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여성주체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영화읽기에 대입하는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이론과의 연계를 짚어보기로 한다.

이 논문은 육체유물론적 관점에서 몸의 물질성이 섹슈얼리티와 맺는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영상이미지의 재현을 분석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이론의 추상성이 재현적 내러티브 속에서 구체적인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론을 영화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적 현상 양쪽을 설명적 도구로 사용한다기 보다는, 이론의 보편적 설명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론과 영화를 중첩시켜 대조해가면서 읽는 방법론적 시도를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의미는 몸, 노동,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여성주체형성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라고 전제하며 몸 논의를 전개해나간 필자의 논의를 추상적 이론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실로 불러들여 좀더 설명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도해본다는 점에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구도가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여성의 삶을 구성하고 여성의 주체형성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이수자, 1999a)는데 있다. 즉 몸은 물질성을 가진 실체로서의 몸이며 이로부터 생성되는 근력과 지력을 통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섹슈얼리티는 몸에 근원을 둔 욕망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생명재생산을 담보하는 생명력을 가진다.

근대적 의미에서 몸, 노동, 섹슈얼리티가 골고루 작동하면서 여성을 타자적 입장에서 영상이미지로 재현해낸 대표적인 영화로 〈영자의 전성시대〉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196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의 물결이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농촌으로부터 대도시로 노동력이 대거 이동하는

격동적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도시로 유입된 저학력 여성들이 사회의 주변부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영자가 70년대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주변인, 타자의 모습으로, 그 시절의 통칭에 의하면 식모(가정부), 여공(여성공장노동자), 버스차장(버스안내양), 그리고 마침내 ‘창녀(성매매여성)’를 재현해내는 과정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이론적으로 재해석해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유행처럼 만들어지던 소위 ‘호스티스 영화’가 보여주는 관음증적 시선과는 다른 차원의 하위주체의 말하기 방식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영화와는 근 20여년 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만들어진 <처녀들의 저녁식사>는 섹슈얼리티 담론을 포스트모던한 방식으로 영상에 담아내고 있지만 섹슈얼리티에 대한 당당한 태도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완전한 여성주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2. 육체유물론으로 보는 여성주체 형성

근대적 의미에서 규정되는 주체 개념에는 이성적으로 계산되고 정제된 정신의 세계가 중심이 되면서 ‘몸’이라는 유기체가 갖는 세속성과 물질성은 거부되고 그 몸에 깃든 섹슈얼리티나 몸이 매개하는 욕망 등은 정신과 동등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여성학은 육체의 주체성을 논의하는데 바로 몸이 갖는 이러한 다중적인 접합지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은 그 자체가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적인 창구이며 일상적 인식의 기초이며, 날마다의 삶을 영위하고 세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섹슈얼리티

와 생산, 그리고 노동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장소이자 주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몸은 규정되는 주체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삶에 개입하는 주체다. 몸과 주체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 때 육체적 유물론이 전망하고 있는 여성주체는 통합적이면서도 다중적인 통로가 세상으로 열려져있는 주체로 볼 수 있다.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시각과 인간 욕망의 변천사를 대변해준다. 여성학에서 여성주체의 근본적인 터전으로 삼고 있는 몸에 대한 담론의 시발점은 노동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몸을 통한 여성의 근본읽기를 시도한 아렌트로부터 시작하여 중세 이후 근대화 과정의 가장 커다란 희생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해 역사적, 사회학적 분석을 이끌어낸 미즈에 그 유물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아렌트와 헬러, 그리고 미즈가 비교적 근대성에 토대를 두면서 몸을 노동 수행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포스트모던 몸담론의 출발점이 되었던 육체유물론적 몸 논의는 훨씬 폭넓은 논의 전개를 보이고 있다.

몸의 물질성과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주체적 삶과 연결된다고 할 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70년대의 호스티스 멜로 영화 중 하나인 〈영자의 전성시대〉에 대입하며 읽어보기로 한다. 70년대 영화계는 사회비판과 정치적 입장 표명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당국의 영화검열과 우수영화 정책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60년대의 왕성하고 다양한 영화작품 활동을 포기한 영화계는 안전주의 제작으로 선회하게 되어 제한적인 주제 선택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던 ‘호스티스 멜로’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장호의 데뷔작이자 출세작인 〈별들의 고향〉이 45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호스티스 멜로 열풍이 시작된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일련의 호스티스 영화에는 당대

톱스타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했고 과도한 섹스산업의 유입과 맞물려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지만, 의식 있는 감독들은 호스티스 멜로 속에도 사회비판과 굴절된 삶의 모습을 담아내려 애썼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다.

1) 몸의 물질성과 노동

유물론적 관점에서 성별분업을 분석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미즈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즈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재료를 자기 삶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획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성에 속하는 자연적 힘들,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움직여서 행하는 자연정복의 한 과정이 노동’(Mies, 1983: 168)이라는 마르크스의 노동관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육체성(Körperlichkeit)의 성차에 주목한다. 육체성의 성차는 세분화해서 보면 자연에 대한 여성/남성의 대상관계, 여성적 생산성/남성적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이 생산에 사용하는 도구의 차이로 나타난다. 인간육체의 생산성은 여성의 경우에 출산이라는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미즈에 의해서 자기 육체성의 정복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생산력이, 남성의 경우 손과 머리를 이용해 도구를 창조하고 다루는데 이용된 것과 대조적으로 여성은 출산을 담당함으로써 자기 육체를 정복하고 그 육체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자의 전성시대>의 주인공 ‘영자’는 주인공의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특정인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그 시절의 배운 것 없고 기술 없이 오로지 몸 하나만으로 견고한 사회구조 속에서 타자화되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로 상경하여 처음에 잡은 직업이 소위 ‘식모’이다. 지금의 가사도우미와는 달리 ‘주인’집에 함께 살

면서 24시간 내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일제 가정부로서 청소, 음식 조리, 잔심부름 등 몸을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한다. 이를 아렌트의 논의와 연결시켜보자. 아렌트는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노동, 일, 행위, 활동, 문화 등의 개념 규정을 통해 구별하면서 이 개념들이 활동적 삶(vita activa)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아렌트는 우선 노동과 작업을 신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노동하는 신체와 작업하는 손’¹⁾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노동(Arbeit)은 고통과 수고가 동반하여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행위로서 ‘인간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채집/수집하여 신체와 결합시키는’ 활동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가 사용된다.

영자가 행하는 노동은 철저하게 ‘노동하는 신체’와 ‘작업하는 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주인집 아들에 의한 강간으로 오히려 ‘식모’ 자리를 박탈당한 채 쫓겨난 영자가 그 다음으로 택한 직업은 봉제공장의 미싱사이다. 이는 가사노동을 담당했던 식모로서의 재생산적 노동과는 달리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이며 재화를 생산하는 행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렌트가 말하는 ‘노동하는 신체’로서, 그리고 ‘작업하는 손’을 이용한 노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수한 ‘손’에 의한 생산노동을 담당하는 것도 길지 않았는데, 너무도 적은 월급 때문에 찾아낸 일거리가 바로 ‘버스차장’이다. 버스토권을 빼돌리지는 않는지 늘 감시당하고 출퇴근 시에는 버스 문이 닫히지도 않은 상태로 출발해야했던 당시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영자는 결국 달리는 버스에서 온 몸으로 승객들을

1)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의 구별에서 록크의 구별을 차용하여 설명한다. Arendt, Hannah(1967),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 제3장 ‘Arbeit’와 제4장 ‘das Herstellen’을 비교 참조.

밀면서 가다가 길로 떨어져 왼쪽 팔을 잃게 된다. 이제는 정말 아렌트가 정의한 ‘활동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작업하는 손’을 잃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영자는 주변부에서도 가장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로 내몰리게 된다. 즉 생존을 위하여 더 이상 근대적 의미의 노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연애하러 서울에 온 것이 아니에요. 돈벌러 왔다니깐요’라면서 어렵게 사랑을 고백하는 창수를 거부했었던 영자가 스스로도 육체적 관계의 가장 타락한 형태라고 여기는 성매매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된다. 한쪽 팔이 없는 장애여성으로서 성매매 여성 중에서도 가장 하류로 취급받으며 번번이 손님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천대받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영자가 절망의 가장 끝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만나게 된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낳고서, 즉 어머니가 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구원’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모성이 상징해온 모든 허물과 모든 고통을 승화시키는 가장 성스러운 노동, 즉 생명생산의 완성과 더불어서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영자는 근대적 의미의 노동하는 몸의 물질성을 통해서 여성 삶의 고단한 측면만을 직면하는 타자적 존재였다가 어머니가 됨(mothering)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의지에 의해 영위해나갈 안정적 삶을 획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되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를 미즈의 논의와 연결시켜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미즈의 성별분업에 관한 유물론적 분석은 특히 여성의 몸을 노동수행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이해하는데 있어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즈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구의 근대과학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육체가 사용되고 수탈당해 온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몸에 관한 역사유물론적 이론(이수자, 1999b: 172-176)을 만들어왔는데 여기서 인간의 생명생산은 여성이 주로 담당했던 일일

노동력 재생산과 더불어 여성이 독점적으로 담당했던 세대재생산 활동이다. 진정한 의미의 생산(production)이 수반되며 아울러 섹슈얼리티가 매개가 되어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렌트와 미즈의 논의에 있어서 공통점은 몸을 노동이라는 틀을 매개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몸이 자본주의적 근대화과정에서 물질화되고 대상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아렌트는 인간이 몸을 통해서 노동 뿐 아니라 작업의 단계를 거쳐서 행위를 수행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여기에 탄생성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후대의 여성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적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영자의 경우는 딸을 낳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생산을 통해 노동의 궁극적인 차원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생산행위가 어느 경우라도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가지면서 여성의 주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비록 영자가 그 이전의 삶의 역정과 비교해볼 때 어쩌면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여성의 주체적 삶을 충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과 옛날 애인이었던 창수가 나란히 도로를 질주하고 그 배경으로 아기를 업고 웃는 영자의 행복한 얼굴표정이 겹치면서 영상이 마감됨으로써 결국 과거의 수호천사와 현재의 구원의 주인공, 즉 두 남성에 의한 구원이 궁극적으로 영자를 주체가 아닌 영원한 타자로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영자는 암울한 사회상이 만들어낸 존재로서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영원한 타자로서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운데 식모에서 창녀로, 마침내 어머니가 됨으로써 몸의 물질성을 노동으로부터 섹슈얼리티를 수행하는 성매매여성으로, 그리고 미즈

가 말하듯이 성별분업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재생산을 담당하는 출산을 통해 몸의 물질성을 현재화하고 있다.

2) 성과 노동의 물질적 관계

육체의 물질성을 여성주체의 주요 개념으로 도입하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육체 혹은 주체의 육체화라는 용어는 근대적 의미의 주체성을 넘어서 주체를 재정의하려는 페미니즘의 새로운 시도를 잘 보여주는 핵심 용어다. 왜냐하면 근대적 주체의 확고부동한 초월적 자아를 재사유하는 것로부터 출발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근대주체가 부정했던 육체를 적극적으로 다시 사고하고 인정하는 것을 논의의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유물론의 주요 설명요소는 성차(sexual difference)다. 성차의 궁극적인 물질적 표현은 모성이라는 논제를 발전시킨 이리가라이는, 유물론이라는 용어의 뿌리가 어머니(mater)이고 물질적인 것(the material)은 주체의 기원의 영역이자 여성 주체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심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물론을 그 모성적 뿌리에 다시 귀착시키고 그림으로써 또한 여성적 상징의 정상을 향한 발판을 마련한다(Braidotti, 1994)고 보고 있다.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육체를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범주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사회적 조건들 간의 중첩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로써 육체의 주체성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브라이도티의 설명은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설명이 갖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간과함으로써 자칫 추상적인 논의로 발전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주체의 육체화되고 성적으로 구별되는 구조를 강조하는 유물론의 새로운 형식이라

는 스스로의 개념정의를 고려할 때 사회학적 범주를 협소하게 정의함으로써 주체가 위치하는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존재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압축적 개념 정의로서 브라이도티는 육체적 유물론에서 정의되는 육체를 물질적인 힘들과 상징적인 힘들이 교차하는 경계면이자 문턱이며 또한 장(場)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육체는 인종, 성, 계급, 나이 등의 다중적 코드가 각인되는 언어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이수자, 2004).

육체를 성과 노동에 연결시키는 시도는 그 접근방식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성을 육체와 함께 사고한다는 것은 여기에 정신 또는 감각이라는 비물질적인 것과 재생산이라는 육체의 기능적인 면이 동시에 개입됨을 의미한다. 한편 육체를 노동과 연결시키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을 근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해온 역사적 인식이 요구되고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육체는 기능적인 도구, 스스로의 추동력을 가진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로 전략하게 된다.

영자가 한쪽 팔이 부재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비너스에 비유하여 미화시키면서 합리화를 하는 이유는, 비록 한쪽 팔이 없는 비정상적인 몸이지만 성을 파는 행위에 하등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팔이 없는 장애를 입고 있는지 모르고 들어왔던 손님이 ‘팔병신이 걸려들어서 재수없다’며 도로 나가려할 때 몹시 흥분하면서 함께 화를 내는 배경에는 자신의 처지가 윤리적으로 여성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영자에게 여기에서마저도 거부당하면 생존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절박함이 숨어있다.

이 대목을 이리가라이의 육체화와 성차 개념이 결합된 육체유물론과 연결시켜 성찰해보는 작업은 성과 연관된 여성 노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이다. 이리가라이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녀가 취하는 전략적 본질주의²⁾가 성과 노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하는 여성주체가 함의하고 있는 합리주의적 자아의 완성이라는 측면은 탈육체화하고 따라서 젠더 구분을 완전히 떠나 탈성별화된 이론적 범주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로서의 생산과 노동을 정의하는 전통적이고 협소한 노동 개념을 뛰어넘는 세대재생산 노동의 차원이라든가 성적 노동 등은 섹슈얼리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가사노동과 감성노동은 섹슈얼리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섹슈얼리티의 바탕이 되는 성별 정체성, 그리고 젠더를 바탕으로 성립되고 여성에게 부과되는 노동이다(이수자, 2004). 그러므로 영자가 여러 가지 ‘여성성’을 매개로 하는 직업을 거쳐 마지막에 성매매라는, 여성의 성적 자존감이 완전히 무화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노동’으로 스스로에게 수용하는 과정은 영화가 상영되던 그 당시의 수많은 사회적 하층 여성들의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동으로서 물질 조건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종류의 ‘노동’이 여전히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지켜주기 보다는 노동의 물질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보여주면서 육체적 물질성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몸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노동의 접합은 그 접합의 양태와 구현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몸과 섹슈얼리티를 ‘관통하는’ 노

-
- 2) 이리agara가 여성육체의 구조가 갖는 상징을 통해서 전통적 여성성을 해체하는 과정을 육체화된 여성 주체성을 통한 근본적 성적 구별화라는 전략으로 볼 때 이를 전략적 본질주의라고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이를 ‘근본적 내재성을 통한 초월’로 명명하면서 ‘젠더 너머’라는 입장을 향해서 여성성을 거부하는 전략과 구별한다(브라이도티, 1994: 177). 이는 또한 새롭게 젠더화된 보편성을 띠느냐, 아니면 젠더를 넘어 제3의 성별 위치를 향해 이동하느냐 하는 이론의 각기 다른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의제 선택의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

동으로서 노동력 재생산을 든다면 몸과 섹슈얼리티를 ‘도구 또는 매개로 하는’ 노동으로 성적 서비스노동을 들 수 있고 여성의 몸에 전제되어 있는 섹슈얼리티가 간접적인 노동력의 형태를 빌어,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발휘되는 노동 또는 직종으로 도우미, 스튜어디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섹슈얼리티와 노동이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섹슈얼리티의 전제조건인 성적 정체성과 노동이 연결됨으로써 재생산, 감성노동, 성적 서비스노동이 언급될 수 있다. 이 노동들의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여성성을 전제로 하여 여성들에게 할당되는 노동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성성이 진정한 내면적 가치로서의 여성성이라기보다는 섹슈얼리티가 강조되면서 물질적 측면에서 외부적으로 강요되는 여성성이라는 점이다.

육체유물론과 연관시켜서 살펴볼 때 중요한 사실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몸을 통해 세계인식의 폭이 다를 수 있고 여성들의 윤리가 머리로 습득된 윤리가 아니고 감성이 우리나는 가슴과 자궁 등의 기관을 포함한 몸으로 경험되는 윤리라는 점이다. 여성의 고유한 생산은 재료에 노동을 가하여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가공’의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생산을 뜻한다. 즉 여성이 행하는 노동이 성 정체성과 직결되어 표출되는 것이 가사노동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인 구조와 특성이 생산과 연결되어 언급되는 것은 임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출산, 즉 생명생산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범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성의 가슴이나 자궁 등을 통한 노동의 수행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개념으로는 적극적으로 사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통상 일컫는 생산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생명생산이 가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의미를 뛰어넘는 이론적 설명은 <영자의 전성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입가능하다. 성매매 여성으

로서 살아가던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산업화과정에 놓인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타자, 하층민 여성이었던 영자가 비로소 육체가 이를 수 있는 가장 ‘비자본주의적 생산’을 통해 자기 삶의 주체적 위치를 세워갈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국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쩌면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졌던 여성이 구원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어머니로 설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자가 살았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추구되었던 이상적 여성의 역할과 지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몸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을 ‘모성’에서 찾는 전형적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영자가 꿈꾸던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여성이자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이 가능해지기는 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 육체유물론의 궁극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영자의 경우에는 소위 ‘몸이 더럽혀지고 이에 따라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당시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이에 더하여 여성으로서의 가장 ‘타락한’ 지위인 ‘창녀’의 위치에서, 다만 꿈도 꿀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성스러운 모성’ 역할로 도약한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구원’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궁극적인 여성의 주체성 확립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구원이 가능했던 배경은 어쩌면 남성적 환상이 작동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이 영화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값싼 육체노동을 담당하던 여성이 팔을 잃음으로써 그러한 노동마저도 행할 수 없어서 결국 몸을 팔 수 밖에 없고 죽고 싶어 하는 나날을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순간 남성에 의해 구원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감독의 시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당시의 통념 상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성매매 여성이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다시 생명생산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점은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렸던 여성들, 특히 순결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성매매의 그늘로 떠밀려간 많은 주변적 여성들에게 일종의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성의 삶이 자신의 주체적 결정에 의해서보다는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에게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푸코식 표현과 같이 ‘순응하는 몸’, ‘유순하고 길들여진 육체’가 되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역설적일 수도 있는, ‘자기 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로서 ‘한 남자의 아내의 자리에서 맞는 출산’이 의미를 갖는다. ‘주체는 결국 경험의 역사다’(Scott, 1993: 442)라는 스콧의 논의에 따라서 보자면, 영자는 삶의 역정을 모두 밟은 그 끝에서 나름대로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통속적이면서도 처절한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주체로서 우리와 마주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순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지만 자신이 혼자서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리가라이식 독해와 같이 주체적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예기치 못한 임신을 순이처럼 자신의 온전한 삶속에 끌어안으려하는 주체적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지리산 등반을 홀로 하면서 그 의미를 곱씹으며 고민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결정이었고 바로 그런 면에서 온전히 혼자 도달한 결론이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체적 삶의 결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몸을 토대로 한 주체의 욕망

섹슈얼리티를 통하여 젊은 여성의 주체적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한 영화 중 주목할 만한 영화로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각기 직업이 다른 친구 관계인 20대 여성 세 명의 사랑, 성, 결혼, 직업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수행방식을 솔직한 대화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 영화로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중심 주제로 삼으면서 1998년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대사와 노골적인 베드신으로 인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세 여성은 성과 몸,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해 각기 다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주체의 세 가지 범주를 축약하여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범주 내지 전형을 여성 주체의 세 가지 범주에 대입시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와 대응되는 섹슈얼리티 이론은 욕망과 관련된 여성의 성적 주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로츠는 서구의 전통적인 이분법에 의해 정신보다 항상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몸을 재형상화(refiguring)하여 주체성 형성의 두 가지 주요 축인 정신과 육체가 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교직된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몸을 재형상화 하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섹슈얼리티가 주체형성에 작용하는 역동성을 추적하는 논의가 포함된다. 그로츠는 다음의 네 가지 다른 의미로 섹슈얼리티 개념을 사용한다 (Grosz, 1994). 우선 섹슈얼리티는 주체에서부터 대상으로 향하는 충동, 본능, 혹은 추동력의 한 형식이다. 둘째, 섹슈얼리티는 육체와 장기와 쾌락을 수반한 일련의 행위와 실천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오르가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섹슈얼리티는 정체성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는 욕망과 차이와 주체의 육체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특정한 방식을 포함하는 일련의 성적 경향, 위치, 욕망을 지칭한다.

여기서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주체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되고 동시에 이러한 섹슈얼리티를 담지하고 있는 몸의 육체적 물질성은 그로츠의 유동적 육체의 주요 구성요소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가 정체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욕망의 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로츠에 있어서 육체의 물질성은 이리가라이에 있어서의 성차에 입각한 육체의 물질성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한층 여성의 성적 주체의 가능성을 지향한다. 그로츠에 의하면 성차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유동적이고 따라서 성차가 역사적으로 각인되어 재현되는 육체 또한 유동적이다.

4. 욕망의 이미지화

몸논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몸이 섹슈얼리티와 긴밀한 연관을 맺는 맥락 속에서 여성의 주체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페미니즘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섹슈얼리티는 욕망(desire)으로, 실제와 행동의 시리즈로서의 행위(act)로, 그리고 정체성의 맥락에서 이해된다(Grosz, 1994: 8). 몸과 노동, 섹슈얼리티를 주요 요소로 하여 이들이 각기 어떻게 새롭게 개념정의 되고 재정렬 되느냐에 따라 여성주체의 구성은 내용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를 여성주체, 여성주의적 주체, 그리고 성적 주체로 구분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처녀들의 저녁식사>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성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극명한 태도 차이를 통해서 이들

이 각기 성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 전형들을 성적 주체로 정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분석해본다.

사례 1: 호정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호정은 육체적 욕망을 지체 없이 충족할 수 있는 성적 자율권을 자신의 주체성과 연결시켜 사고하는 여성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호정은 디자인회사의 사장으로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한다고 믿는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나이 많고 별로 매력을 느끼지도 않는 유부남과도 관계를 맺으며 자기 회사의 연하 부하직원과도 망설임 없이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영위한다. 육체적으로 맺는 성적인 관계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성적 쾌락을 얻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러면서 성적 관계로 엮여서 구속을 가하려는 인습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영화의 전편에서 성적 자유를 자신의 주체적 결정의 결과로, 그리고 이를 자기 삶의 방식으로 선언하는 호정이 성적 욕망을 여성주체성과 연관시켜서 행동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브라이도티의 논의에 대입하여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여성주체성의 대안적 정의를 정교화하는 페미니즘의 기획에서 욕망이 긴급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들뢰즈의 욕망이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Braidotti, 1994).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페미니즘 이론은 단순히 반동적으로 사유되는 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성들의 존재론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때의 욕망은 프로이트식의 표현에 따른 리비도적 욕망이 아니라 존재론적 욕망, 존재하려는 욕망, 존재하려는 주체의 경향, 존재를 향한 주체의 경향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의 욕망은 자신을 여성주체로서 위치지우려는 구조적 욕구, 즉 탈육화된 실체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별화된 존재로서 위치지우려는 욕구인 것이다. 이는 바로 주체성

을 육체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반위에 세우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로써 브라이도티는 육체유물론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는 주체이론을 형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위치지우기의 정치'가 지닌 인식론적 측면을 여성주체의 설명에 적극 대입시키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호정의 거침없는 성생활은 한편으로는 성을 통해 여성들에게 군림하듯 행동하는 남성들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표시이다. 즉 그녀에게 있어서 섹스라는 것은 사회가(직접적으로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수동적 역할과 순응적인 위치에 대한 거부이자 조롱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녀가 남성들과의 성적 관계에서 누리는 권력과 쾌락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몫이었던 것이 뒤바뀐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성주의 비평의 시선이다(주유신, 1999: 214). 즉 단지 주체의 성별이 뒤바뀐 성적 권력일 뿐이라는 것이다. 호정은 결국 유부남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간통죄에 걸려서 수감되는 상황까지 가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점에 대해 극도의 반발을 하게 된다. 이로써 그녀가 행사하던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로운 성적 권력은 사실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던 권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간통죄라는 사회적 통제에 대해서 '내 몸을 왜 국가가 통제하느냐?'라는 울분을 토로하면서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주체적 존재로서의 성적 주체가 사회적 맥락과도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통렬하게 보여준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던 호정이 간통사건 이후 남자친구의 비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적 주체로서 곳곳하게 존재하는 여성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남성감독에 의해 재현되는 영화에서 시대적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 순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순이는 세 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언제나 평화롭고 경제적이고 깨끗한 자위행위’로 성욕을 해소해온 그녀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다른 두 친구와는 달리 아직 ‘처녀’다. 함께 일하는 유부남 동료 연구원이 계속 자청해서 성적 파트너가 되어줄 용의를 표시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별로 성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영화에 총 3번 등장하는 저녁식사 시간에 성에 관련된 수다를 할 때는 매우 적극적인 자기 의견을 표한다. 예기치 않게 친구 연이의 남자친구와 단 한 번의 성관계를 가지고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된다.

순이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여성주의적 주체는 여성주체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성별에 대해 회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제시되는 주체다. 보르도가 제기하는 성별회의주의(gender scepticism)(고갑희, 1999: 24-25)에 의하면 성별체계가 내포할 수 있는 단순화와 일반화가 여성들 간의 개인적인 차이를 무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주의적 주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은 모든 사회적 존재의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자신을 위치지우거나 위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순이의 캐릭터가 호정에 비하여 오히려 여성의 주체적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순이가 단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게 되는 상대 남성은 평소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과 저녁식사하면서 섹슈얼리티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할 때 늘 함께 했던 인물로 서로 ‘여자친구의 친구’, ‘친구의 남자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순

이의 제의에 의해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될 때조차도 ‘딱 한번이고 앞으로도 없을’ 관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너무도 싱겁게 끝이 났지만 그 결과는 순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만한 것이었다. 즉 순이는 임신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낳아서 키울 결심을 하면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미혼모가 되기 전에 자연유산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순이는 다른 두 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하여 삶의 전반적인 지향을 새롭게 성찰하면서 성적 주체가 된다. 성적 주체와 여성주체, 그리고 여성주의적 주체의 경계는 사실 그리 명확하지 않다. 드 로레티스는 페미니즘적 사고를 “갈등적 역사에 기반을 둔, 여성으로 성별화된, 혹은 여성으로 육체화된 사회적 주체에 대한 발전중인 이론”(de Lauretis, 1990: 266)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성주체와 여성주의적 주체의 명확한 경계짓기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신 사실을 안 순이의 미혼모로서의 삶에 대한 선택이 정확히 여성주의적 주체로서의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순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태에서 남성과 갖는 최초의 성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자기규율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며 임신조차도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과 권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수용한다. 순이가 바라보는 자신의 몸은 이로써 ‘식민화되지 않은 여성 육체’의 이미지(주유신, 1999: 218)로서 자기 완결적이고 충족적인 느낌을 주며, 푸코식 논의에 따르면 ‘육체화된 자아’를 형성하여(베일리, 1990: 122-23) 여성을 항상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 육체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시선을 거부하는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다.

사례 3: 연이

세 여성들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연이는 한 사람의 고정된 남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내심 그와의 결혼을 기대하고 이를 기다리는 호텔 종업원이다. 호정의 집에 방 하나를 세내어 살고 있으면서 남자친구도 때때로 이 집으로 놀러와 세 명의 여성 모두와 잘 아는 사이로서 네 명 모두는 성에 관한 허심탄회하고도 솔직한 얘기를 공유하는 관계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정작 자신의 몸이나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을 늘 지니고 있다. 결국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떠나가면서 진료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만났던 남성과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내심 기대감을 갖지만 결국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섹슈얼리티와 연관하여 남자에 대해서 가졌던 의존성을 버리게 되고 마침내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갖는 성관계에서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신의 몸을 마주하게 되면서 성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게 된다.

여성주체라고 했을 때는 여성을 남성 집단과 대비되어 이분법적으로 분류한 성별체계에 따라 상정하고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여성을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집단 내의 개별적인 차이에 집중하기 보다는 집단이 갖는 대표적 특성, 개연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성별체계 속에서의 성정체성을 갖는 존재로서 이 존재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체제, 법, 제도적 장치의 역사적 구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존재다. 즉 그 사회 속에서 규정한 여성이라는 범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성주체라고 했을 때는 성별체계 내에서의

여성을 집단적으로 보는 시각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의미에서 여성 주체는 역사적/사회적 주체의 의미가 강하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인간으로서 처음에는 저항할 틈도 없이 산업화의 물결 속에 ‘타자’로 끼어 있다가 서서히 여성주체로 정체성을 부여받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자가 적극적인 주체로 자신을 인식한다기 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면서 드러나지 않는 내면 속에 자신을 긍정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정체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보편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절대적 주체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실천을 전제로 하는 주체로 규정될 수 있다.

성적 주체는 앞에서 언급한 여성주체와 여성주의적 주체의 개념 사이에서 성을 매개로 하여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이래 오랫동안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성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여성의 성적 욕망은 결혼과 가족 범주 내에서 해결 하도록 권장되어 왔으며 성적 쾌락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고, 따라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재생산과 직결되었고 순결함이라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왔다. 이렇게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본질적 특성이 가려지고 금기시되어오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제약받고 비가시화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왔다. 반면에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타고난 것이고 통제불가능하며 여성에 의해 쉽게 야기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Vance, 1984: 1-2).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육체화된 자아의 사례를 보여준 순이의 경우처럼 몸에 대한 자기규율이 강하면서도 섹슈얼리티로 인하여 몸의 새로운 국면, 즉 임신을 했을 때도 철저하게 자율적 결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은 드 로레티스의 자신의 육체적 경험과 협상하는 과정으로서의

재현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드 로레티스에 의하면 젠더와 섹슈얼리티 모두가 기본적으로 재현이며 나아가 자기재현인데 이때의 재현이란 언어나 담론체계를 통해서 생산되는데 여기서 섹슈얼리티처럼 젠더는 속성이나 인간에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본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육체들, 행위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에서 생산되는 효과들의 묶음’(de Lauretis, 1987: 3)이다. 따라서 드 로레티스는 여성의 육체 자체가 담론의 효과일 뿐 아니라 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주체가 재현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 경험과 협상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여성주의 이론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야 하며 정확하게 여성다움을 여성 주체의 경험으로 구성하는 섹슈얼리티와의 특정한 관계를 질문해야 한다”(de Lauretis, 1984: 184)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여성주의적 주체의 중요한 토대가 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5. 몸의 재개념화와 영상재현의 독해

〈영자의 전성시대〉와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가능한 주체는 성적 주체이다. 왜냐하면 이성애 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성이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들이 자신들을 성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성적 주체는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적 주체란 욕망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이며 성적 주체로 만드는 것은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서 성적 주체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성별체계 자체를 의문시할 때 타자화된 성, 재생산적인 성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성을 다른 여러 사회관계들과의 연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여성 주체를 섹슈얼리티에 집중하여 정의하는 성적 주체 분석은 여성학의 모더니즘적 해결방식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해와 ‘차이’를 드러내는 정치학으로서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타자화된 성의 전형으로서 성매매여성이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극적인 구원에 의하여 몸의 가장 승화된 생산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상성의 범주로서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의 한국적 상황에서 시대적 기준에 맞는 성적 주체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의 몸이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을 온 힘으로 다하여 담당해온 영자는 바로 산업화 과정의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주체의 통칭이 될 수밖에 없다.

영상으로 재현된 성적 환상과 욕망은 배우를 통하여 여성관객들에게 감성적 전이를 일으키고 또한 사고와 행동양식에 은연중 효과를 미침으로써 여성 관객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과 가치평가를 끌어들이게 된다. 이미지의 수용은 때로 가장 효과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해 관객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시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욱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화적 태도가 시대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때로는 성적 실천이 이론적 논의를 반드시 뒤따라간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이 논문에서 다룬 두 영화 모두 남성감독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면서 바로 그렇게 때문에 어떤 면에서 최근의 여성감독의 영화와 비교할 때 입장론(standpoint theory)적 측면에서는 여성주체의 본질적 논의에서 조금 빗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평균적인 당대의 사회적 기준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반면

여성의 섬세한 성적 행동양식의 근저를 재현해내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보임으로써 이미지 비평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이들 영화를 선택한 본 연구에서 생각할 여지를 더해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육체유물론적 이론과 영상 재현의 대응적 독해를 시도함으로써 몸의 물질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구체적인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애초의 목적인 대응적 독해는 방법론적으로 시도된 것 자체로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단순한 영화 분석을 넘어서려면 좀더 적극적 이론적 전개와 이에 적절한 대응적 독해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사례로 선정된 두 편의 영화가 완벽하게 이론을 구현하고 이론으로써 해독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했다는 한계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연구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적 시도로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해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육체를 재사고하는 인식론적 출발을 육체로부터 잡는 것은 바로 여성주의적 주체의 존재론적 욕망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도 이 연구의 의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과 영상재현을 연계하는 대응적 독해의 방법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학적 이론과 조응시킬 만한 적절한 영상재현의 선택이 이루어져서 보다 깊이 있는 독해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 2010. 10. 10

원고수정: 2010. 10. 25

게재확정: 2010. 11. 10

참고문헌

- 고갑희(1999),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을 위한 이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여/성이론』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18-47쪽.
- 베일리, Th. E.(1993), “푸코식의 페미니즘: 경쟁 속의 신체, 섹슈얼리티, 정체성”, ed., Caroline Ramazanoglu, *Up against Foucault : explorations of some tensions between Foucault and feminism*, 카롤라인 라마자노글루 편, 『푸코와 페미니즘』, 최영 옮김, 서울: 동문선, 1998, 119-129쪽.
- 박찬부·정정호 외 편역(1997),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보르도, 수잔(1992),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성별-회의주의”, 이소영·정정호(편역),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신문화사, 313-349쪽.
- 이수자(1999a), “여성주체형성의 삼각구도-몸, 노동, 섹슈얼리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여/성이론』,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_____(1999b), “몸의 여성주의적 의미확장”,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5권 2호.
- _____(2004), 『후기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주유신(1999), “〈처녀들의 저녁식사〉: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아, 육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여/성이론』,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6-230쪽.
- 태혜숙(1999), “성적 주체와 제3세계 여성문제”, 여성문화이론연구소(편), 『여/성이론』,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103쪽.
- Braidotti, Rosi(1994), “Toward a New Nomadism: Feminist Deleuzian Tracks; or Methaphysics and Metabolism”, Constantin V. Boundas

- Dorothea Olkowski, eds., *Gilles Deleuze and the Theater of Philosophy*, London: Routledge. 브라이도티/ 오수원(역), “새로운 노마디즘을 위하여: 페미니즘의 들뢰즈적 궤적 혹은 형이상학과 신진대사”, 『문화과학』, 1998년 가을호, 165쪽.
- Haraway, Donna J.(1992),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1980년대에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홍성태 편역 (1997), 『사이보그, 사이버컬처』, 문화과학사.
- Arendt, Hannah(1967),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 Piper Verlag.
- de Lauretis, Teresa(1987), *Technology of Gender: Essays on Theory, Film and Fiction*, Basingtoke: MacMillan Press.
- de Lauretis(1990), “Eccentric Subjects: Feminist Theor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Feminist Studies*, vol. 16, no.1.
- Grosz, Elizabeth(1994), “Introduction and Acknowledgments”, *Volatile Bod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ies, Maria(1983), “Gesellschaftliche Ursprünge der geschlechtlichen Arbeitsteilung”, In: *Frauen, die letzte Kolonie*, von Werlhof, C., Mies, M. & Bennhodt-Thomsen, V. (Hrsg.) Bremen: Rowohlt
- Scott, Joan(1993), “Evidence of Experience”, Henry Abelove etc. (eds.), *The Lesbian and Gay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ance, Carole S.(1984), “Pleasure and Danger: Towards a Politics of Sexuality”, ed., Carole S. Vance,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Abstract〉

Corporeality and Sexuality: A Symmetrical Reading of Theories and Visual Representations

Su-An Lee

This paper is consisted of two analytical dimensions. Firstly, the relation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corporeality with sexuality is scrutinized. Secondly,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adopted into the analysis of visual representations in order to look for the possibility of explanation of abstract theory in the representative narratives, especially in two Korean movies, 〈The Golden Age of Youngja〉 and 〈Girls' Night Out〉. The theoretical hypothesis which I built in my previous studies is: feminist subject is composed with three elements, body, labor, and sexuality. To prove this theoretical hypothesis with practical level, I used the methodology of analysis, symmetrical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ories and visual representations. It is a rare attempted methodology in the analysis of visual representations.

〈The Golden Age of Youngja〉 was made in 1975 in the middle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e main character is a young woman named Youngja who settled down in Seoul as a poor laborer after moving from country side as many other young women at that

time. She started her working path from a domestic helper. She went through factory worker, conductress of bus. Her working path led her even to prostitution. In the process of becoming mother she got the feeling of self-existence after all.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formation of sexual subject. Another movie, <Girls' Night Out> deals with the outspoken sexual discourses between three women who are in the relation of friends. The movie is made with three episodes of three women, especially in the focus on the sexual attitude and opinion. The women have obviously different attitudes on sexuality and their lives. The formations of subject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attitudes about sexuality. With this study the theory is more precisely explained and it looks possible to build up the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KEY WORDS: corporeality, sexuality, labor, representation,
symmetrical reading